**2013년 중국 은행업의 발전과 외국계은행 중국진출 현황**

<개요> 2013년은 중국의 WTO가입 12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 금융업이 개방 된지도 7년이 지났다. 지난 7년 동안 중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여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은 중국 은행업의 발전은 물론 외국계은행의 중국 진출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국 은행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5대 국유 상업은행이 총자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중국 은행업은 국내외 경기 하락,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순이자마진 축소, 부실대출률 상승, 금리 시장화 개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익증가율이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는 2013년 상장은행의 수익증가율이 2012년의 19%에서 7%~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경제성장과 은행업의 수익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은행은 향후 중국 은행업의 발전을 낙관해 적극적인 진출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은행 관계자들은 2015년까지 중국 사업 수익율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 은행업 발전 현황

– 2013년 3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은행업 금융기관 의 총 자산액(국내외 자산 및 외환 자산 포함)은 133.6조 위안으로 2011년보다 11.9% 증가함

– 이 중 44.9%를 차지하는 대형상업은행 의 총자산은 60조 위안으로 11.9% 증가했고, 17.6% 비중을 차지한 주식제상업은행 의 총자산은 23.5조 위안으로 28% 증가함

– 은행업 금융기관의 총부채는 125조 위안으로 2011년보다 17.8% 증가했고, 그 중 대형 상업은행의 총부채는 56.1조 위안으로 11.6% 증가, 주식제 상업은행의 총부채는 22.2조 위안으로 28.4% 증가함

– 유동성 비율은 45.8%로 전년보다 2.7%p상승하였고, 예대비는 65.3%로 0.5%p 상승함

○ 상업은행 순이익 증가율 둔화

–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1.24조 위안으로 18.9% 증가하여 수익증가율이 2011년도의 37%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 상업은행의 평균 자산수익률은 1.3%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평균 자본수익률은 19.8%로 전년보다 0.6%p 하락함

– 2012년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7,746억 위안으로 모두 10%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특히 공상은행이 2,385.32억 위안의 순이익을 달성해 세계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함

– 하지만2011년도 수익 증가에 비하면 이들 은행의 수익증가율은 대폭 하락세를 보임. 2012년에 19%로 가장 높은 수익증가율을 보인 농업은행도 2011년의 28%에 비하면 대폭 축소되었음

– 주식제 상업은행 중에서는 47.18%에 달하는 수익 증가율을 기록한 흥업은행(兴业银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익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 상업은행의 순이익 증가율은 2011년 37%에서 2012년 18.9%로 급격히 하락했고, 특히 민생은행(民生银行)의 2012년 수익증가율은 34.51%로 전년보다 24%p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 금융문제 전문가 자오칭밍(赵庆明)에 따르면 대외 경제여건이 금융 수요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고, 금리의 시장화로 이차(利差)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은행 수수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짐에 따라 중개업무 수익에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여기에 부실대출 증가까지 겹치면서 은행이 다방면에서 수익 압박을 받고 있음

○ 순이자마진(NIM) 축소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전문가 장용쥔(张永军)은 주요 은행들의 수익증가율 둔화 원인이 은행의 운용자금 규모 증가 둔화와 국내 자본시장 침체, 은행의 순이자마진 축소에 있다고 분석함

– 교통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순이자마진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5bp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순이자마진의 축소는 은행 수익증가율을 5%p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

– 2012년 순이자마진은 1분기의 2.75%에서 2분기의 2.74%로 감소했고, 6월과 7월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금리의 시장화가 겹치면서 순이자마진이 급속도로 하락해 3분기에 2.69%, 2012년 말에는 2.63%까지 떨어짐

– 중국금융닷컴(中国金融网 www.zgjrw.com)이 내놓은 ‘2013년 중국은행업 발전 전망’에 따르면 2013년 상장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계속 하락하여 2.5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봄

– 중앙재경대학 중국 은행업연구센터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올해 2월 25일부터 시행된 은행카드 사용수수료 인하(평균 23%)가 은행카드 수입을 약 20%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함

– 은감회가 발표한 2012년 3분기 은행업 운행보고에 따르면 3분기 상장은행의 중개업무 수입이 영업수입에서 평균 17.9%를 차지함

– 비록 카드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중개업무 수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非신용대출류 사회융자의 급증으로 인한 채권발행, 재무 컨설팅 등의 수입 증가와 재테크 및 신탁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 수입 덕에 2013년 상장은행들의 중개업무 수입 증가율은 18% 대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는 2013년 상장은행들의 수익증가율이 7%~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중국금융닷컴도 2013년 상장은행들의 순수익이 전년대비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불량대출액과 불량대출률 동시 상승

– 2012년 12년 말, 상업은행 부실대출 규모는 4,92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647억 위안이 증가했고, 부실대출률이 0.95%로 나타남

– 2012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다수의 은행들이 대출을 크게 축소함. 건설은행은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전년보다 33.9억 위안 줄였으며, 융자플랫폼 대출액도 2011년에 비해 465억 위안 감소함

– 5대 은행 중 부실대출액이 가장 높은 은행은 농업은행으로 858.48억 위안에 달하며, 작년 부실대출액과 대출률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음

–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은행업은 지방 융자플랫폼 대출, 부동산 대출, 재테크 상품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 앞으로도 부실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함

–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 롄핑(连平)은 은행 부실대출이 2013년에 약 700억~900억 위안 정도 증가하겠지만, 부실대출률은 2012년 말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 향후 발전 추세

– 업계 관계자는 2013년 은행 재테크 상품 수익률이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재테크 상품 발행수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주식, 부동산 등 투자시장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함

– 업계 전문가는 올해 은행업 업무는 여전히 대출 위주와 중개업무 확대 등을 통한 수익 증대가 올해 은행업 성장의 기초가 될 것으로 분석함

– 특히 도시화 촉진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많은 상업은행들이 도시화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

– 예를 들어 건설은행은 건설비 견적 자문, 재테크 서비스 등 도시화 사업을 겨냥한 중개업무 확대를 각 지점에 지시함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업계는 대출 급증에 따른 융자플랫폼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음. 도시화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주체와 융자방식이 더욱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음

○ 은행업 감독 강화

– 작년 많은 은행에서 위법적인 재테크 상품 판매 행위가 적발된 후, 2012년 12월 은감회는 <은행업 금융기관 대리판매 업무 리스크 조사에 대한 통지(关于银行业金融机构代销业务风险排查的通知)>를 발표하고, 각 은행에 내부 관리 강화 및 제3자 상품 대리판매 업무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함

–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商业银行资本管理方法)>이 시험적으로 시행되면서 자본충족률의 측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자본의 정의,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가중 자산 측정, 자기자본충족 평가절차, 정보 공개, 장외 파생상품 등에 관한 감독관리가 더욱 엄격해짐

– 외국계은행(기타은행)의 자본충족률에 대해서는 2018년 말 전까지10.5%로 단계별 인상을 추진함

 외국계은행 중국 진출 현황

○ 외국계은행의 중국 공략 러시

– 2013년은 중국 금융업의 전면적인 대외 개방이라는 WTO 협정을 이행한지 7년째 되는 해이며 2007년 외국계은행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 지 5년이 지남

– 외국계은행의 중국 진출이 중국 은행업의 금융혁신과 발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은행업의 개방으로 중국 금융시장의 혁신을 촉진했고, 금융 인프라시설이 개선되었으며, 금융 감독관리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됨

– 2012년 말, 현재 중국에는 4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진출한 은행 법인 42개, 브랜치 지점 95개, 대표처 197개가 있으며, 외국계은행 서브 브랜치까지 포함한 영업점포 수는 900여개에 달함

– 세계적 회계•경영컨설팅 업체 PwC 보고서 에 따르면 중국내 181개 외자은행의 2011년 총이윤은 167.3억 위안으로 2010년의 1.15배에 달함. 외자은행 중 규모가 천억 위안 이상인 은행은 HSBC, BEA, standardchartered, City 4곳에 불과함

– 위 4개 은행의 자산규모는 HSBC가 2,690억위안, BEA가 1,744억 위안, standardchartered은행이 1,732억 위안, 그리고 City은행이 1,274억 위안임

– 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의 중국 메인사업은 기업 대출로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안화의 국제화와 함께 국내기업의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함

– 중국내 외국계은행은 유동성비율, 부실대출률, 자본충족률, 핵심자본충족률 등 각 금융감독 지표 상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말, 외국계 은행의 자본충족률은 19.74%, 핵심자본충족률은 19.25%, 부실대출률은 0.52%로 나타남

– <투자자보(投资者报)> 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6개 전국망을 가진 상업은행의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은 23%인데 비해 외국계은행은 33%로 전반적으로 본토은행보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윤증가율은 169%에 달함(2011년 말 기준)

– PwC의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은행은 향후 은행업의 발전을 낙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중국 사업 수익율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발전 추세

– 최근 중국에 해외지점 설립이나 독립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외국계 은행이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이 동부연해 지역을 첫 지점 진출지로 선택하고 있으며 몇 년간의 경험을 쌓아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로, 본토은행에 비해 영업망 수와 커버 지역이 적은 것이 열세로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할 부분임

– 현재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영업은 주로 개인대출, 신용카드, 소비금융이며, 비교적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재테크 상품과 개인은행 업무가 향후 외국계은행이 주목하고 강화해야 할 업무 분야임

– 2012년 초<12.5기간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규획>이 정식 발표되어, 2015년까지 상하이를 세계적인 위안화 상품의 거래, 혁신, 정가(定价), 결산의 중심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이는 외국계은행이 글로벌 위안화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역량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 중국 은행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은행은 본토은행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존 경쟁력을 살려 이미 글로벌시장 마케팅, 위안화 국제화 관련 서비스, 파생상품 등에서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업무 진출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많은 은행이 직불카드 업무 허가를 받은 한편, 일부 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신용카드 업무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 일부 독자 외국계은행은 중국 증권거래소 상장과 후순위채권 발행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출처: 中国银行业协会(www.china-cba.net), 普华永道(www.pwccn.com), 中国金融网(www.zgjrw.com), 新华网(www.xinhua.net), 和讯银行(bank.hexun.com), 财经界(www.moneychina.net.cn), 中财网(www.cfi.net.cn), 《经济》杂志